

4·19혁명 43주년 기념 국가조찬기도회 축하 메시지

4·19혁명 43주년을 맞아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온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열사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은 우리 민주항쟁사의 커다란 분수령입니다. 독재를 물리친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부마항쟁, 광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오늘의 참여정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4·19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숭한 어려움을 이겨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참여해야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바뀝니다. 이것은 4·19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4·19혁명 43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